

## 초등학교 고학년 남녀 아동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직업포부 수준의 차이\*

서옥형(徐玉炯)\*\*

황매향(黃梅香)\*\*\*

### 논문 요약

이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남녀 아동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직업포부 수준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학생들이 생각하는 직업의 지위와 직업의 선호도, 직업포부 수준을 살펴보는 것을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2개의 집단(비빈곤집단, 빈곤집단)으로 나누어 비빈곤집단 348명, 빈곤집단 130명, 총 47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아동이 지각한 직업의 지위와 희망하는 직업을 알아보고, 이에 따라 직업포부 수준을 산출했다. 연구의 결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직업의 지위는 학력과 연봉으로 정의한 직업의 지위와 차이를 보였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남학생의 경우 집단별로 변호사(비빈곤집단)와 경찰관(빈곤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변호사(비빈곤집단)와 제과제빵사(빈곤집단)로 나타났다. 직업포부 수준을 비교한 결과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두 집단에서 모두 높았다. 그러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직업포부 수준의 차이는 아동이 지각한 직업지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학력과 연봉으로 정의한 직업지위에서는 비빈곤집단의 높은 직업포부 수준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직업포부를 활용하여 성역할과 사회계층의 차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진로발달과도 밀접히 관련됨을 확인했고, 진로 및 직업선택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해결에 정보를 제공하여 유의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초등학교, 사회계층, 직업포부, 직업지위, 성차

\* 이 논문은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옥형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제1저자, 곡반초등학교 교사

\*\*\* 교신저자,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I. 서론

국가적 차원에서 진로교육이 처음 시작되는 초등학생 시기는 Super의 진로발달이론에서 성장기에 해당된다. 성장기에 있는 대부분의 아동들에게 있어 직업은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며, 자아개념과 관련된 흥미, 능력, 가치 등의 발달이 주로 일어나는 시기이다.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초등학생들이 개성과 소질을 인식하고, 일과 직업에 대해 편견 없는 마음과 태도를 갖도록 지도하고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시설과 인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직업 세계의 이해와 탐색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교육부, 2015)을 두고 있으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진로교육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선택의 순간을 당당하고 화려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과정이다(정철영 외, 2006). 위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은 성인과 다르게 진로의식이 미분화된 상태이므로 진로의식이나 의사결정능력보다 아동들이 표현하는 직업적 포부를 중심으로 진로인식이나 진로발달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며(Gottfredson, 1981; Seligman, Weinstock, & Heflin, 1991; Trice & King, 1991), 국내 연구에서도 직업포부가 초등학생 진로인식을 반영하는 유의한 지표로 제시되었다(최인화, 임경희, 박미진, 2012). 또한 초등학생의 창의적 인성과 진로인식이 직업포부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조봉환, 박미진, 2012). 이러한 직업포부는 개인의 자아개념, 진로관련 행동, 가능한 기회에 대한 사회적 힘에 대한 지각, 미래의 교육 및 진로관련 선택, 성취동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다(Rojewski, 2005). 또한 아동 및 청소년기의 교육 및 직업포부는 성인기에 획득하게 되는 교육 및 직업의 선택을 예언해 주는 유용한 변인들 중 하나(Mau & Bikos, 2000)이다.

한 개인의 직업포부는 다양한 맥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고, 이 중 성별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우 진로발달 측면에서 그 출발점이 된다(Heppner & Jung, 2013). 이들이 제안한 성역할 및 사회계층 진로발달 모형(Gender and Social Class Model of Career Development, GSCM)에 따르면,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은 성역할 사회화와 사회계층 문화 전수를 통해 자아(self)를 구성하게 되어 진로발달의 근간이 된다. 성역할 사회화와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내면화하여, 자신이 미래에 추구할 직업에 대한 인식과 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과 자신이 어디에 잘 맞는가라는 자아개념은 진로와 직업적 성취를 결정하게 되고, 성차와 사회계층 차이를 재생산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을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을 경험하는 맥락과 그 수용에도 성역할 사회화와 사회계층 문화 전수가 형성한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영향을 미친다. GSCM은 전생애적 발달과정을 조망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시기에도 성역할 사회화와 사회계층 문화 전수는 이미 진행되고 있어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직업포부의 형성이 성별과 사회계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직업포부에서의 성별 차이는 Gottfredson의 진로발달 이론(Gottfredson, 1981; 1996; 2005)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다. Gottfredson은 진로발달의 과정은 직업의 세계와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자신이 추구할만한 직업의 폭을 줄여나가는 과정, 즉, 직업포부와 관련하여 개인이 지각하는 수용가능한 진로대안 영역(Zone of Acceptable Alternatives)을 설정하는 것으로 본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직업의 성별 유형, 직업의 지위수준, 자신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차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직업을 결정할 때에도 성유형, 직업지위, 직업적 성격유형을 차례로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한다. Gottfredson이 제안한 4단계의 발달단계 가운데, 6~8세에 해당하는 2단계가 성역할 획득 단계로 성역할 사회화에 따라서 자신의 직업포부를 제한한다. 사물이나 사태를 이분법적으로 지각하는 이 시기 인지발달적 특성이 직업인식에도 반영되어,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성별에 따라 적합한 일이 있다는 직업인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직업이 성역할로서 적합한 직업과 부적합한 직업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인식되고, 자신의 성에 부적합한 직업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 목록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Heppner와 Jung(2013)이 제안한 성역할 사회화가 어떻게 자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안한 것이 Gottfredson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성들의 직업이 여성들의 직업보다 지위가 높은 경우가 많아 여아들은 남아들보다 직업포부가 낮아질 수 있음을 Heppner와 Jung은 지적하고 있다. Gottfredson에 따르면, 성별은 초기단계에 남성적, 여성적 직업으로 나누어 직업포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직업포부에서 성별은 중요한 요인이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이정임(2008)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직업포부 수준이 낮았다. 그리고 최인화, 임경희, 박미진(2012)의 연구에서는 직업포부 유형에서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실재형에서는 남학생이, 예술형과 사회형에서는 여학생이 높은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앞서 살펴본 이론적 가정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생의 직업포부 수준의 성별 차이를 분석한 또다른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직업포부가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유정이, 김지현, 황매향, 2002). 즉, 초등학교 시기 직업포부의 남녀 성차에 대해서는 어느 한 성이 더 높은 직업포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기 어렵고, 그 차이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국에서 70년대와 80년대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 연구들은 사회계층이 진로성숙, 직무, 직업선택 등 다양한 영역과 발달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Juntunen, Ali, & Pietrantonio, 2013). Gottfredson의 진로발달이론은 이를 포괄하여 직업포부에 있어서의 성차만이 아니라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도 구체적 시기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진로발달 단계 중 성역할 획득 단계 다음 단계인 3단계 사회적 가치 획득 단계에 사회계층 효과가 반영된다. 9~13세에 해당하는 시기로 사회적 평가

에 민감해지면서 자신의 능력과 사회계층이 자아개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시기부터 직업세계를 사회적 서열로 지각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가진 능력과 사회적 배경에 비해 지위가 낮다고 생각되는 직업들을 선호하는 직업에서 제외시키고 동시에 너무 지위가 높은 직업들도 선호하는 직업에서 제외시킨다. Gottfredson만이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낮은 사회계층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낮은 직업포부를 갖게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Fouad와 Brown(2000)은 차별적 계층 정체성(Differential Status Identity, DSI)이라는 개념을 인종과 사회계층의 심리적 효과를 이해하는 틀로 제안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집단에 기인한 사회적 서열 차이로부터 오는 정체성(p. 387)'이라고 정의한다.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이나 인종이 자아정체성으로 자리 잡고,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부유한 아동에 비해 빈곤한 아동의 발달에 사회계층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Thompson과 Subich(2011)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 낮은 사회계층의 가정에서 성장할 경우 중간 계층이나 높은 계층에서 성장하는 경우보다 자원에 대한 접근의 열악성을 더 강하게 느끼고,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회계층 세계관 모델(Social Class Worldview Model, SCWM)을 제시한 Liu 등(2004)도 사회계층이 자아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강조한다. SCWM에서는 사회계층이 의식·태도·가치관 영역, 참조집단, 소유관계, 생활양식, 행동 등 다섯 가지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여기에서 개인의 진로관련 태도와 행동은 사회계층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는데, 누구나 자신의 사회계층과 이 다섯 가지 영역이 일관되는 삶을 추구하고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업적 포부와 교육적 포부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Arbona & Novy, 1991; Rojewski & Kim, 2003), 직업적 흥미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연구결과도 있다(Trusty, Ng, & Plata, 2000).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기준 상위 10%와 하위 10%의 초등학교 교육비가 약 8배 가까이 차이(통계청, 2015)가 날 정도로 사회 전반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소득의 양극화가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진로발달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고, 보다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영역으로 지적되고 있다(황태향, 선혜연, 2013). 직업포부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련성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교육종단연구(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LS) 1차년도~3차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들의 상위직 직업포부의 경우 가구소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신수영, 김경근, 2012).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직업포부 수준 결정 요인 중에 가정의 경제적 수준의 영향이 크다는 연구결과(이종범, 최동선, 오창환, 2012)도 있다. 이외에도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특성 요인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는 소외계층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김경주, 송병국, 2011), 빈곤계층의 청소년의 경우 비빈곤 청소년에 비해 가족위험 요인이 높았고 학업성취도와 직업포부 수준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정지혜, 2006). 이처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직업포부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많지만, 아직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포부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직업포부가 아동 초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성장과정을 통해 점차 안정화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양한 연구결과들(Armstrong & Crombie, 2000; Rojewski & Yang, 1997; Trice & McClellan, 1993)과 학생들의 직업포부가 아동기에 형성되어 이후까지 지속된다는 일관된 연구결과(Wahl & Blackhurst, 2000)를 볼 때, 성역할 사회화의 사회계층 문화 전수에 따른 성차 및 계층차이를 초등학교 수준에서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직업포부 수준을 알아보고, 성별과 사회계층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 남녀 학생들이 생각하는 직업의 지위는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 남녀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 남녀 학생들의 직업포부 수준은 차이를 보이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을 설정했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분류기준은 표 1에 요약한 것과 같다. 빈곤집단에는 서울, 경기 지역의 9개 초등학교 학급 내 정부지원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대상 및 차상위 계층으로 구분된 가정의 아동을 선별하여 130명(5학년 75명, 6학년 55명)이 포함되었다. 비빈곤집단에는 서울, 경기 지역 내 6개 초등학교 학급에서 국민기초생활대상 및 차상위 계층 아동을 제외한 학급 전체 아동이 포함되었다. 학교 선정에 있어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서울의 강북지역 2개 학교, 강남 지역 1개 학교, 경기지역 3개 학교를 선택하였고, 총 348명(5학년 179명, 6학년 169명)이 포함되었다. 연구 대상의 분포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lt;표 1&gt;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분류기준

항목	분류기준
빈곤집단	교육급여 지원 대상아동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해당 가정은 중위소득(전국의 모든 가구에 대해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 50%이하의 가정임 - 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이 포함됨
비빈곤집단	일반 학교 학생 중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가 아닌 아동

&lt;표 2&gt; 연구 대상의 분포

학생구분	5학년		6학년		전체	
	남(명, %)	여(명, %)	남(명, %)	여(명, %)	남(명, %)	여(명, %)
빈곤집단	42(29.8)	26(22.8)	33(29.2)	29(26.4)	75(29.5)	55(24.6)
비빈곤집단	99(70.2)	88(77.2)	80(70.8)	81(73.6)	179(70.5)	169(75.4)
합계	141(100)	114(100)	113(100)	110(100)	254(100)	224(100)

## 2. 연구 도구

### 1) 아동이 지각한 직업의 지위

아동들이 생각하는 직업의 지위를 알아보기 위해 유정이, 김지현, 황매향(2002)이 제작한 질문지를 최근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반영하여 직업 종류 및 직업에 대한 설명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선별된 총 70개의 직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받는가?”에 대해 판단하여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로 표시하게 하였다.

### 2) 직업포부 수준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의 직업포부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개방형 질문지는 ‘자신이 되고 싶은 직업’ 3가지를 적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아동들이 생각하는 직업의 지위 질문지에 제시되었던 총 70가지의 직업목록을 제시했고, 직업목록에 있는 직업을 포함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적도록 하였다.

### 3. 연구절차 및 분석

초등학생 5, 6학년 총 4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했다. 직업명과 직업목록에서 수정·보완이 있었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특히, 이 단계에서 직업의 지위 개념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받는가?”라는 질문이 적절한가와 더 적절한 질문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기존 질문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수렴되었다. 본조사는 2015년 10월 중순에서 2016년 2월 초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실시 안내문과 질문지를 전달하고 각 학급의 담임이 자료수집을 담당했다. 실시를 맡은 담임교사는 안내문과 더불어 전자우편을 통해 실시과정에 대해 지도를 받았다. 아동들의 경제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질문지에 학생들의 번호를 기입하게 하고, 담임교사가 따로 제공된 학급명렬표에 직접 경제적 수준을 세 단계(기초수급, 차상위, 일반)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포부 수준에 대한 정의를 ‘아동이 갖기를 원하는 장래 희망직업의 지위 수준’으로 설정하고, 희망직업으로 응답한 3가지 직업의 지위값의 평균을 각 개인의 직업포부 수준으로 산출했다. 직업의 지위값은 두 가지로 산출해 아동들이 지각한 직업의 지위 수준과 고용노동부에 제시된 각 직업정보에 근거한 직업지위로 각각 명명하였다. 먼저, ‘아동이 지각한 직업지위’는 각 직업에 대해 5점 척도로 아동들이 응답한 값의 평균으로 산출한 다음 순위를 역순으로 정하고, 그 순위를 직업지위값으로 정의해 학생들이 지위가 높다고 지각한 직업일수록 직업지위값이 높게 지표화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직업지위’는 고용노동부의 직업정보를 활용해 산출한 직업지위값을 통해 산출했다. 고용노동부 직업정보에 제시된 각 직업의 학력과 연봉을 고려하여 산출한 직업지위를 사용했는데, 각 직업의 학력과 연봉을 고려하여 직업의 지위를 결정한 이유는 교육이 직업지위를 획득하는데 중요한 원인이고 수입은 그에 따른 결과이므로 ‘교육’과 ‘수입’은 직업지위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변수이기 때문이다(유홍준, 김월화, 2006).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위의 70개 직업 목록을 사용하였고, 아동들이 희망하는 직업에 응답한 직업 가운데 목록에 제시되지 않은 직업들을 정리하여 33개 직업을 추가하여 총 103개의 직업지위값을 산출하였다. 직업의 지위값은 노동부에서 실시한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자료(출처: 워크넷 한국직업정보시스템)를 토대로 직업별 학력분포(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교졸, 석사, 박사)를 척도화한 순위와 직업별 임금 순위(직업별 임金的 평균값)를 합산하여 만든 지위값으로 변환하였다. 직업포부는 학력과 임금의 순위 합계로 합계가 낮을수록 직업포부 수준이 높아 이를 역산해 직업지위값으로 정의했다. 즉, 여기에서도 직업지위값이 높을수록 직업지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로 초등학교 아동들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직업포부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SPSS 21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빈곤집단, 비빈곤집단)에 따른 아동의 직업지위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각 직업에 대해 아동들이 5점 척도로 응답해 산출한 직업지위값에 대해 기술통계분석 및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빈곤집단, 비빈곤집단)에 따른 아동들이 가장 희망하는 장래 직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빈곤집단, 비빈곤집단) 및 성별에 따른 아동의 직업포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집단별 직업의 지위 인식 차이

집단별 아동들의 직업포부 수준을 측정하기에 앞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이 생각하는 각 직업의 지위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아동이 생각하는 직업의 지위 수준을 성별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분류한 결과, 비빈곤집단의 경우 소방관(남학생), 의사(여학생), 빈곤집단은 경찰관(남학생), 소방관(여학생) 등을 지위가 가장 높은 직업으로 인식했다.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두 집단 모두 남녀 구분 없이 형사, 경찰관, 소방관 등 세 직업이 아동의 관점에서 지위 수준이 높은 직업이었으며, 이외에도 의사, 변호사 또한 두 집단 남녀 모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들이 생각하는 직업의 지위 수준은 학력과 연봉을 고려한 직업의 지위 수준과는 대체로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표 3, 4와 같다.

<표 3> 비빈곤집단 아동의 직업지위 인식

	남학생		여학생	
	직업명(평균)	지위 순위	직업명(평균)	지위 순위
비 빈 곤 집 단	1.소방관(4.40)	61	1.의사(4.60)	3
	2.경찰관(4.40)	45	2.소방관(4.50)	61
	3.형사(4.30)	45	3.경찰관(4.49)	45
	4.응급구조원(4.27)	70	4.변호사(4.46)	6
	5.변호사(4.26)	6	5.형사(4.35)	45
	6.의사(4.21)	3	6.초등학교 교사(4.31)	20
	7.대학교수(4.01)	1	7.응급구조원(4.30)	70
	8.약사(3.98)	17	8.대학교수(4.23)	1
	9.고고학자(3.98)	9	9.간호사(4.17)	58
	10.천문학자(3.89)	12	10.고위공무원(4.15)	2

<표 4> 빈곤집단 아동의 직업지위 인식

	남학생		여학생	
	직업명(평균)	지위 순위	직업명(평균)	지위 순위
빈 곤 집 단	1.경찰관(4.22)	45	1.소방관(22)	61
	2.형사(4.22)	45	2.형사(4.16)	45
	3.변호사(4.00)	6	3.변호사(4.15)	6
	4.소방관(4.15)	61	4.초등학교 교사(4.05)	20
	5.응급구조원(4.03)	70	5.응급구조원(4.05)	70
	6.의사(4.13)	3	6.의사(4.05)	3
	7.초등학교 교사(3.86)	20	7.경찰관(4.02)	45
	8.경호원(3.71)	73	8.대학교수(3.93)	1
	9.고고학자(3.58)	9	9.의류디자이너(3.93)	45
	10.약사(3.74)	17	10.약사(3.89)	17

뿐만 아니라 빈곤집단에서는 실제 직업지위값이 높은 직업을 지위가 높은 직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직업지위가 높은 1~5위까지의 직업을 얼마나 지위가 높은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집단간 인식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5과 표 6과 같은데,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모두 대체로 빈곤집단의 아동들이 비빈곤 집단 아동들에 비해 높은 지위의 직업의 지위를 더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비빈곤 집단이 직업지위가 높은 직업에 대해 빈곤집단에 비해 더 현실적인 지각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상위 5개 직업에 대한 집단별 남학생의 직업지위 인식

직업명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대학교수	빈곤	75	3.55	1.41	2.92***
	비빈곤	179	4.01	1.01	
고위 공무원	빈곤	75	3.40	1.42	2.75***
	비빈곤	179	3.88	1.20	
의사	빈곤	75	3.72	1.35	3.16***
	비빈곤	179	4.21	1.02	
한의사	빈곤	75	3.47	1.29	1.89
	비빈곤	179	3.79	1.21	
생물학자	빈곤	75	3.49	1.21	2.26*
	비빈곤	179	3.83	1.04	

\* $p < .05$ , \*\*\* $p < .001$

&lt;표 6&gt; 상위 5개 직업에 대한 집단별 여학생의 직업지위 인식

직업명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대학교수	빈곤	55	3.93	1.22	1.86
	비빈곤	169	4.23	.97	
고위 공무원	빈곤	55	3.73	1.35	2.55*
	비빈곤	169	4.15	.95	
의사	빈곤	55	4.05	1.22	4.14***
	비빈곤	169	4.60	.70	
한의사	빈곤	55	3.55	1.29	2.00*
	비빈곤	169	3.88	.98	
생물학자	빈곤	55	3.58	1.26	2.20*
	비빈곤	169	3.93	.94	

\* $p < .05$ , \*\*\* $p < .001$ 

## 2. 희망 직업의 집단별 차이

각 집단의 아동들이 희망하는 직업으로 선택한 자료를 분석하여 각 직업을 선택한 비율과 각 직업의 지위 순위(학력과 연봉을 고려하여 산출한 값)를 비교하였다. 성별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집단별로 희망하는 직업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비빈곤집단의 경우 남녀 모두 변호사(남학생 6.5%, 여학생 6.9%)의 선택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빈곤집단의 경우 남학생은 경찰관(9.3%)이, 여학생은 제과제빵사(9.1%)가 가장 높은 비율로 희망하는 직업으로 선택되었다. 비빈곤집단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이 모두 변호사를 가장 많이 희망한다는 점과, 빈곤집단 아동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들은 모두 직업지위가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집단이 선택한 희망 직업 중 10위까지를 표 7, 8에 정리했다.

&lt;표 7&gt; 비빈곤집단 아동들이 희망하는 직업

	남학생		여학생	
	직업이름(선택비율, %)	지위 순위	직업이름(선택비율, %)	지위 순위
비 빈 곤 집 단	1.변호사(6.5)	6	1.변호사(6.9)	6
	2.형사(6.5)	45	2.초등학교 교사(6.7)	20
	3.천문학자(6.0)	12	3.의사(6.1)	3
	4.의사(5.6)	3	4.제과제빵사(5.7)	97
	5.운동선수(4.7)	41	5.유치원교사(3.9)	86
	6.고고학자(4.1)	9	6.소설가(3.7)	84
	7.고위공무원(4.1)	2	7.의류디자이너(3.7)	45
	8.생물학자(4.1)	4	8.요리사(3.6)	82
	9.경찰관(3.7)	45	9.항공승무원(3.2)	29
	10.만화가(3.7)	96	10.만화가(3.0)	96

&lt;표 8&gt; 빈곤집단 아동들이 희망하는 직업

	남학생		여학생	
	직업이름(선택비율, %)	지위 순위	직업이름(선택비율, %)	지위 순위
빈곤 집단	1.경찰관(9.3)	45	1.제과제빵사(9.1)	97
	2.변호사(6.7)	6	2.의류디자인(7.3)	45
	3.운동선수(6.2)	41	3.유치원교사(6.1)	86
	4.형사(6.2)	45	4.초등학교 교사(6.1)	20
	5.의사(5.3)	3	5.요리사(4.2)	82
	6.만화가(4.9)	96	6.의사(4.2)	3
	7.천문학자(3.6)	12	7.만화가(3.6)	96
	8.경호원(3.1)	73	8.간호사(3.0)	58
	9.제과제빵사(3.1)	97	9.경찰관(3.0)	45
	10.컴퓨터 조립원(3.1)	77	10.상담가(3.0)	53

### 3.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성별에 따른 직업포부 수준의 차이

아동들이 지각한 직업의 지위와 아동이 희망하는 직업을 이용하여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성별에 따른 아동의 직업포부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9와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직업포부 수준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F=16.681, p>.05$ ), 성별의 경우 차이를 보였는데 두 집단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직업포부 수준이 높았다( $F=171.040, p<.05$ ).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별이 직업포부 수준에 미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13, p>.05$ ).

&lt;표 9&gt; 아동이 지각한 직업지위에 따른 직업포부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성별 차이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비빈곤집단	남학생	173	51.85	12.20
	여학생	167	46.52	12.43
	합계	340	49.23	12.59
빈곤집단	남학생	73	50.49	13.86
	여학생	54	44.27	11.68
	합계	127	47.84	13.29
합계	남학생	246	51.44	12.71
	여학생	221	45.96	12.26
	합계	467	48.85	12.78

&lt;표 10&gt; 아동이 지각한 직업지위에 따른 직업포부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성별 차이 비교

하위요인	변량원	자유도	평균제곱	F
직업포부 수준	지위수준	1	295.600	16.681
	성별	1	3031.042	171.040*
	지위*성별	2	17.721	.113
	오차	463		
	전체	467		

\* $p < .05$ 

고용노동부의 직업정보에 제시된 학력과 연봉으로 정의한 직업의 지위와 아동이 희망하는 직업을 이용하여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성별에 따른 아동의 직업포부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11와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직업포부 수준이 높았으며( $F=1036.685, p < .05$ ), 성별에서도 차이를 보여 두 집단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직업포부 수준이 높았다( $F=797.505, p < .05$ ).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016, p > .05$ ).

&lt;표 11&gt; 고용노동부 직업지위에 따른 직업포부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성별 차이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비빈곤집단	남학생	179	66.21	21.71
	여학생	169	58.69	20.89
	합계	348	62.56	21.62
빈곤집단	남학생	75	57.60	19.32
	여학생	55	49.52	20.21
	합계	130	54.18	19.95
합계	남학생	254	63.67	21.36
	여학생	224	56.43	21.01
	합계	478	60.28	21.48

&lt;표 12&gt; 고용노동부 직업지위에 따른 직업포부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성별 차이 비교

하위요인	변량원	자유도	평균제곱	F
직업포부 수준	지위수준	1	7350.265	1036.685*
	성별	1	5654.444	797.505*
	지위*성별	2	7.090	.016
	오차	464		
	전체	468		

\* $p < .05$

## IV. 논의

이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별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동들이 생각하는 직업의 지위, 희망 직업, 직업포부 수준 등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직업지위에 대한 아동들의 지각은 아동들이 각 직업의 지위를 척도화한 질문지로 측정하였고, 아동의 직업선호도 및 직업포부 수준은 아동들이 개방형 질문지에 응답한 장래 희망 직업과 해당 직업의 지위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다른 두 집단을 선정했는데, 비빈곤집단 아동은 일반학교에서 정부지원대상 가정의 아동을 제외한 학급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빈곤집단 아동은 일반학교와 교육복지투자사업 학교 내 정부지원대상 가정의 아동(기초수급지원대상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와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하면, 첫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초등학교 5, 6학년 남학생, 여학생들이 생각하는 직업의 지위는 아직 현실적인 직업지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빈곤 집단과 비빈곤 집단 모두 남학생들은 주로 소방관, 경찰관, 형사 등이 직업의 지위가 높다고 응답했고, 여학생은 소방관, 의사 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의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직업은 학력과 연봉으로 정의한 직업의 지위와 비교했을 때 직업의 지위가 낮은 편에 속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에서는 아직 직업의 지위에 대해서 다소 미분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국내 선행연구(유정미, 김지현, 황매향, 200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아동들이 희망하는 직업에서도 '운동선수', '제과제빵사'와 같은 직업이 선호하는 직업의 높은 순위를 보이는 것으로 환상기적 직업포부가 남아있음을 시사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학업우수아들의 직업포부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황매향, 박은혜, 유성경, 2006). 이러한 결과는 Gottfredson(2005)의 진로발달이론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직업세계에 대해 어느 정도 현실적인 지각을 획득하고, 그에 따라 자신이 추구할 직업의 지위수준에 대해 개념화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발달 수준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진로교육에서 직업세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성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다음으로 학력과 연봉으로 정의한 직업지위 상위 5개 직업에 대해 아동들이 지각하고 있는 직업지위를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남녀 아동 모두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상위 직업들에 대해 더 높은 지위 수준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시기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동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지위가 높은 직업들의 상대적 우위를 잘 지각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권현아(2004)의 연구결과와도 일관되는데, 가정의 생활

수준 및 거주지에 따라 진로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생활이 여유로운 집단의 아동이 생활이 어려운 집단의 아동보다 진로인식의 하위요인인 ‘일(직업)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업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좌우한다는 주장(Heppner & Jung, 2013; Juntunen, Ali, & Pietrantonio, 2013; Liu et al., 2004; Thompson & Subich, 2011)을 토대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직업지위가 높은 일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학생이 학교에 가지고 들어오는 다양한 개인차를 어떻게 수용하고 각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공교육이 해결할 중요한 과제를 제안한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생들의 개인차의 출발점으로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인데,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와 관련해서는 직업세계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라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단, 학생들에게 직업지위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존경하는 정도로 직업의 지위에 대해 질문했기 때문에 정확한 직업지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사용된 질문이고 예비 조사를 통해서도 그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으로 확인되었으나, 직업의 지위에 대한 인식을 보다 정확하게 조작화할 수 있는 방안이 후속연구를 통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직업세계 이해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밝히고, 이 과정에서 남녀 차이 또한 어떤 기제를 통해 드러나는지도 후속연구를 통해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남녀 아동들이 희망하는 직업에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집단별로 변호사(비빈곤집단)과 경찰관(빈곤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집단별로 변호사(비빈곤집단)와 제과제빵사(빈곤집단)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장래희망은 Ginzberg 등(1951)과 Super(1984)의 진로발달이론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흥미기의 특성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시기의 아동은 자신의 취향이나 흥미를 직업선택 시 주로 고려하고,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의 사회적 지위보다 개인의 흥미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또한 남녀 간을 비교했을 때,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직업은 경찰관, 운동선수, 형사 등 남성적인 직업, 여학생의 경우 제과제빵사, 유치원교사, 의류디자이너 등 여성적인 직업을 높은 비율로 선택해 ‘인내할 수 있는 성유형의 경계’가 생긴다는 Gottfredson(2005)이 주장한 직업포부의 제한도 발견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아동 시기 또는 청소년 초기부터 직업포부가 안정화 되는 것(Armstrong & Crombie, 2000; McNulty & Borgen, 1988; Rojewski & Yang, 1997; Trice & King, 1991; Wahl & Blackhurst, 2000)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횡단 연구이지만 직업포부가 지속적으로 변화된다는 연구결과(예, 황매향, 박은혜, 유성경, 2006; Hwang, Kim, Ryu, & Heppner, 2006)가 있어 이러한 아동기 성유형화가 발달과정을 통해 변화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직업포부 수준을 살펴본 결과, 어떤 직업지위값

을 직업포부 수준으로 조작화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먼저, 아동이 지각한 직업 지위를 종속변인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직업포부 수준의 차이를 분석할 경우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직업지위를 종속변인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직업포부 수준의 차이를 분석할 경우 비빈곤집단의 직업포부 수준이 빈곤집단의 직업포부 수준보다 높았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정의 경제수준과 관련한 변인에서 상위직 포부 형성에서 가구소득이 정적인 효과가 나타났고(신수영, 김경근, 2012), 빈곤가정(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중식 지원자) 청소년의 경우 비빈곤가정 청소년보다 낮은 직업포부 점수를 보였다(정지혜, 2006)는 연구결과와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생들의 직업지위에 대한 지각이 정확하게 직업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는 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직업포부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즉, 초등시기 이후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직업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아상을 구성해 진로발달의 여러 결과를 가져온다는 Heppner와 Jung(2013)의 경로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사회화의 효과는 초등시기 이후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스스로 지각하는 직업지위값으로 직업포부의 수준을 볼 때 두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더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종단연구를 통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면밀히 검토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진로발달에서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그 양상이 성장과정을 통해 증폭될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이러한 불평등을 조기에 조정할 수 있는 진로교육 모형과 노력체제 구축은 정책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로교육을 비롯한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내용은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국가교육과정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직업정보에 대한 접근성, 직업세계에 대한 내면화 과정, 나아가 그 결과 형성되는 직업포부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영향은 더 심화되어 갈 가능성을 보여주어, 학생들의 그 어떤 특성보다 빈곤이라는 취약성을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직업포부 수준의 성별 차이에 대한 분석에서는 두 집단 모두에서 여학생의 직업포부 수준이 남학생보다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성차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초, 중, 고등학교 시기에서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직업포부를 나타내는 결과(황매향, 김지현, 유정이, 2003)와는 상반되지만, 여학생의 낮은 직업포부를 확인한 여러 경험적 연구와는 일관된 결과이다. 예를 들면, 이정임(2008)의 연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직업포부 수준이 낮았고, 직업포부 점수에 대한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성차는 변화될 가능성도 제시되었는데, 초등시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직업포부 수준이 높았다가 점차 그 차이가 감소하여 고등학교 시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직업포부 수준이 거의 비슷해진 연구결과(황매향, 박은혜, 유성경, 2006)도 있다. 이러한 상반되는 연구결과들은 진로발달에 있어서의 성차는 성별 자체가 아니라, 어떤 성역할 태도를 학습하게 되는가라는 맥락의 영향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검토를 촉구한다. 즉,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 자체가 아니라, 개인이 내면화하고 있는 성역할과 개인에게 제시되는 성역할 관련 정보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직업포부에 있어서의 성차는 그 방향성에는 이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성차가 존재한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직업포부에서의 성차가 나타나는 기제에 대한 탐구가 후속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진로교육의 과정에서도 성역할 태도에 따라 교육내용이 달리 전달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가진 제한점을 기초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집단 구분에 있어 실제 가구소득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표화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빈곤집단은 정부가 정한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해 비빈곤집단은 분명하게 차이가 나지만, 빈곤집단 내에서의 편차를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비빈곤집단 내의 가구소득 차이의 범위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 부분도 반영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가구의 소득수준을 비롯해 가계의 사회경제적 지표를 활용한다면 그 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학교의 학생들의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다른 지역 학생들에게까지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학생들의 특성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 연구의 결과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직업포부 수준의 집단별 차이만을 확인한 연구로 그 차이를 설명할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즉, 이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진로발달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의 출발점으로서의 의의 정도 밖에 갖지 못하므로 연구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개인의 성별이 진로발달에서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과 과정이 후속연구를 통해 밝혀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15).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초·중등학교 총론 및 각론 교육과정**. 세종: 저자.
- 권현아(2004).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경주, 송병국(2011). 청소년 진로포부 영향 요인 구조 분석. **직업교육연구**, 30(2), 91-115.
- 신수영, 김경근(2012). 가정배경이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 가족 내 사회자본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8(1), 121-141.
- 유정이, 김지현, 황매향(2002). 초등학생 직업포부 및 인식의 발달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5(2), 23-39.
- 유홍준, 김월화(2006). 한국사회의 직업지위 지수. **한국사회학**, 40(6), 153-186.
- 이정임(2008).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직업포부와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이종범, 최동선, 오창환(2012). 고등학생의 직업포부 수준 결정요인. **직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4), 25-43.
- 정지혜(2006). 빈곤가정 청소년의 직업포부 결정요인.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정철영, 서우석, 남미숙, 남미애, 김재호, 이성식(2006). 초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19(4), 99-118.
- 조봉환, 박미진(2012). 초등학생의 창의적 인성과 진로인식 및 직업포부의 관계. **초등상담연구**, 11(3), 447-463.
- 최인화, 임경희, 박미진(2012).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진로포부 및 직업포부유형 간의 관계. **초등상담연구**, 11(2), 261-278.
- 통계청(2015).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지수. 서울: 저자.
- 황매향, 김지현, 유정이(2003). 중고등학생의 직업인식 발달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1), 3-12.
- 황매향, 박은혜, 유성경(2006). 학업우수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직업포부수준 비교. **상담학연구**, 7(4), 1137-1152.
- 황매향, 선혜연(2013). 취약청소년 진로발달 연구 동향. **상담학연구**, 14(6), 3517-3536.
- Arbona, C., & Novy, D. (1991). Career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of Black, Mexican American, and White studen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9, 231-239.
- Armstrong, P. I., & Crombie, G. (2000). Compromise in adolescents' occupational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from grade 8-10.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82-98.
- Fouad, N. A., & Brown, M. T. (2000). Role of race and social class in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sychology. In S. D. Brown & R. W. Lent (Eds.),

-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3rd ed., pp. 379-408). New York: John Wiley & Sons.
- Ginzberg, E., Ginsberg, S. W., Axelra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80.
- Gottfredson, L. S. (1996).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pp. 179-232),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Gottfredson, L. S. (2005). Applying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in career guidance and counselling.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 71-100). New York: John Wiley & Sons.
- Heppner, M., & Jung, A. (2013). Gender and social class: Powerful predictors of a life journey. In W. B. Walsh & M. Savickas (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4th ed., pp. 81-102). New York: Routledge.
- Hwang, M. H., Kim, J. H., Ryu, J. Y., & Heppner, M. J. (2006). The circumscription process of career aspirations in South Korean adolescent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7*(2), 133-143.
- Juntunen, C. L., Ali, S. R., & Pietrantonio, K. R. (2013). Social class, poverty and career development.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2nd ed., pp. 245-274).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Liu, W. M., Ali, S. R., Soleck, G., Hopps, J., & Pickett Jr, T. (2004). Using social clas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3-18.
- Mau, W. C., & Bikos, L. H. (2000). Educational and vocational aspirations of minority and female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8*, 186-194.
- McNulty, W. B., & Borgen, W. A. (1988). Career expectations and aspirations of adolesc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217-224.
- Rojewski, J. W., & Yang, B. (1997). Longitudinal analysis of select influences on adolescents'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1*, 375-410.
- Rojewski, J. W. (2005). Occupational aspirations: Constructs, meanings, and application. In S.

-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 131-154).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Rojewski, J. W., & Kim, H. (2003). Career choice patterns and behavior of work-bound youth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0*, 89-108.
- Seligman, L., Weinstock, L., & Heflin, E. N. (1991). The career development of 10 year olds. *Elementary School Guidance & Counseling, 25*(3), 172-181.
- Super, D. E. (1984). Career and life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2nd ed., pp. 192-234).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Thompson, M. N., & Subich, L. M. (2011). Social status identity: Antecedents and vocational outcom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9*(5), 735-763.
- Trice, A. D., & King, R. (1991). Stability of kindergarten children's career aspirations. *Psychological Reports, 68*(3), 1378-1378.
- Trusty, J., Ng, K., & Plata, M. (2000). Interaction effects of gender, SES, and race-ethnicity on postsecondary educational choices of U.S. studen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9*, 45-59.
- Wahl, K. H., & Blackhurst, A. (2000). Factors affecting the occupational and educational aspiration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3*, 367-375.

\* 논문접수 2016년 8월 2일 / 1차 심사 2016년 9월 9일 / 2차 심사 2016년 12월 8일 / 게재승인 2016년 12월 9일

\* 서옥형: 경인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곡반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 E-mail: icelolly75@naver.com

\* 황매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 전공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 사례에서 배우는 학업상담의 실제, 초등교사를 위한 행동수정 길잡이, 생애설계와 진로탐색 등이 있다.

\* E-mail: maehyang@ginue.ac.kr

## Abstract

## Difference of Upper-gra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ccupational Aspiration Levels across Socioeconomic Status of Family and Gender

Seo, Okhyung\*

Hwang, Mea Hy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s of occupational aspiration and the socioeconomic status of family for upper-grade elementary school boys and girls. According to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s of occupational status, occupational preference and occupational aspiration of male and female grade-5 and grade-6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two different socioeconomic status family backgrounds as non-poor group and poor group. The total of 478 students were participated with 348 non-poor group students and 130 poor group students. With self-reported questionnaire, the perception of occupational status and the level of occupational aspiration were collec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occupational status which students perceived showed a difference from occupational status defined as data of education level and income of each occupation. Students' most preferred occupation was attorney (non-poor group) and policeman (poor group) in male students, and attorney (non-poor group) and baker (poor group) in female students. In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levels of occupational aspiration, higher levels were found in male students than in female students for both groups. And the levels of occupational aspiration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indicators of occupational status. No difference across two groups with the indicators which children perceived. But, the occupational aspirations were higher in non-poor group than in poor group with the indicators derived from educational levels and incomes. This study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gender role and social class could influence children's career development. And we hop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testing inequality occurring in choosing career and occupation and providing information for resolving the inequality.

Key words: elementary school, social class, occupational aspiration, occupational status, gender

---

\* First author, Teacher, Gokban Elementary School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